

한그루봉사단, 한그루동산 가꾸기 활동



지난 4월 8일 토요일,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그루봉사단은 성북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그루동산 (산 7-14 번지 청량근린공원)을 가꾸는 활동을 가졌습니다. 황사가 매우 심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. 어린 묘목을 심어서 우리강산을 푸르게 하는것만큼,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.



상원구역 근처에 있는 한그루 동산에서 쓰레키를 주웠습니다. 얼핏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쓰레키를 주우려 마음을 먹고 난 후 자세히 보니 나무 및 풀 사이사이에 많은 쓰레

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아마 등산객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텐데, 이번 숲가꾸기 체험으로 우리나라 산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보다 많은 홍보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

-동국대학교 이형근



황사가 심해서 활동하느라 다들 고생했습니다.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사랑해서 쓰레키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산 곳곳에 버려진 담배꽂이와 각종 쓰레키 하나하나를 주울때마다 산이 숨을 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앞으로 보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,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보다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.

-서울시립대학교 이희중